

외국 시청자들의 한국 드라마 등장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와 드라마 '흥미도'와 '질 평가'와의 관계 분석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of Morality on the Korean
Drama Characters and the Drama Enjoyment and Quality Evaluation by Foreign
Audience

이혜은*, 유세경*, 정윤경**, 이유진*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Hye Eun Lee(hyeeunlee77@ewha.ac.kr)*, Sae-Kyung Yu(sgyu@ewha.ac.kr)*,
Yoonkyung Chung(ykchung@sch.ac.kr)*, Eugene Lee(egl0516@gmail.com)**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중국, 일본 시청자들이 한국에서 방영된 대표적인 가족 드라마인 '부탁해요, 엄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성격, 태도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인식을 근거로 인물의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 시청자들의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와 질 평가에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남자 주인공 훈재'의 경우 3개국 시청자 모두 호의적으로 평가하였고, 이기적인 큰아들 형규는 3개국 시청자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드라마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공통된 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애, 영선, 산옥 등 부모와 자식의 역할에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 주요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는 3개국 시청자 간에 평가가 엇갈렸다. 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엄마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시청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수용자가 느끼는 드라마 흥미도나 드라마의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 역시 국가마다 다르게 검증되었는데 중국, 일본의 경우 지지되지 않았고 미국 시청자들에게만 지지되었다.

■ 중심어 : | 문화적 근접성 | 성향이론 | 주인공 도덕성 | 드라마 흥미도 | 드라마 질 |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how the United States, Chinese, and Japanese viewers perceive the morality of the main characters in the family drama 'Take Care of Mom' and the influence of the perceived morality has on drama enjoyment and quality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the viewers from all three countries evaluated 'Hoonjae' favorably and evaluated selfish older brother, 'Hyung Kyu', unfavorably. This means there are common norms that exist in all three countries for judging the good and evil in a drama. However, the main female characters that played opposing characteristics were evaluated differently from all three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nd the role of mother and woman were perceived differently from each country. These results support the argument that consumption of drama may differ by viewer's cultural background. Additionally,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moral evaluation of major characters will influence the drama enjoyment and evaluation of the drama quality' was not supported in China and Japan, and was only supported by the U.S. viewers.

■ keyword : | Cultural Proximity | Disposition Theory | Morality of Main Character | Drama Enjoyment | Drama Quality |

1. 문제제기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외국 영상물의 소비가 쉽고 자유로워지면서 외국 수용자의 영상물 수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드라마' 나 '영화' 와 같이 전 세계 시청자들이 즐겨 시청하는 장르의 영상물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제작되기도 한다. 영상물 소비의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TV 드라마의 경우 자국 드라마가 외국 드라마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TV의 특성인 'TV의 일상성'에서 비롯된다. 시청자들은 실시간 방송을 하는 TV를 생활의 일부처럼 여기고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시청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재현된 상징 현실에 대해 공감하고, 문화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더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1-5]. 이러한 현상을 스트라바[2]는 문화적 근접성 (Cultural Proximity) 개념으로 설명하였는데 '문화적 근접성'이란 수용자들이 외국의 영상물을 수용함에 있어 자신들의 정서, 가치, 삶의 방식과 유사한 영상물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한류 현상과, 남미지역과 미국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텔레노벨라'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끄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드라마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문화적 근접성' 개념만으로 외국 드라마 수용 현상을 설명하기 힘들다. 실제로 최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지역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국 드라마를 즐겨 시청하는 이유로 '동경', '호기심', '세련됨', 등 자국과는 다른 '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요인들이 많이 제시되었고 무엇보다 등장인물의 요인, '정의로움', '세련됨', '연기력' '외모 호감도' 등 주인공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6][7].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흥미를 느끼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용 동기와 충족의 관점에서 이를 설명하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에 대한 시청자의 감정적 연결이 드라마 흥미도에 영향일 미칠 수 있다는 'Disposition theory of drama(드라마 성향이론)'[8]에 주목하고자 한다. 드라마 성향이론은 수

용자들이 '드라마' 라는 상징적 현실 속에 등장인물들의 성격, 태도,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연결되면서 그들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평가에 부합하는 서사구조로 드라마가 진행될 때 수용자들은 드라마를 흥미롭게 시청한다고 주장한다[9]. 이후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도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라니[10]는 시청자들이 드라마 등장인물들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드라마 속의 서사구조 안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기 전에 시청자가 주인공들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행동기준, 규범 등에 의해 등장인물의 초기 인상이 결정되고 이러한 해독이 주인공의 도덕성 평가, 나아가 드라마 서사구조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11]. 이러한 설명은 시청자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드라마에 등장한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문화적 근접성'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외국 드라마 수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드라마에 재현된 상징적 현실에 대해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는지의 정도와 시청의 관계를 설명한 '문화적 근접성' 개념, 드라마 등장인물의 도덕성 평가와 드라마 흥미도와와의 관계를 설명한 성향이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도덕성을 평가함에 있어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인식 차이를 가지는지,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와 질 평가에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방영된 대표적인 가족 드라마인 '엄마를 부탁해'에 등장한 주요 인물들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의 수용자들이 등장인물들의 성격, 태도,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와 질 평가에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 가족드라마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부모와 자식의 역할',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인식', '가족애' 등 문화적 차이에 의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가족의 가치'를 가족드라마가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드라마 수용과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 연구

1. 외국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드라마는 허구적 이야기로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형태의 갈등을 통해 극적으로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며 간접경험을 통해 대리만족이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말한다[12]. 드라마는 인간관계나 행위 규범에 관한 직접적인 묘사를 함으로써 사회생활에서 행위준거 틀을 제시하기도 한다[13]. 때문에 뉴콤 외[14]는 드라마가 동시대 삶의 가치, 정서를 반영하고 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문화적 공론장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의 모습을 생생히 재현하면서도 다양한 표현방식과 극적인 스토리구조, 인물설정 등으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의 관심을 단시간에 이끌어내기도 한다[15]. 결국 드라마는 사회적 요소와 창조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문화적 상품으로 시청자들의 가치, 정서, 현실 인식 등이 드라마 수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연구자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 드라마를 시청할 때 수용자들이 드라마의 내용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 인식이 드라마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학자들은 '문화적 근접성' 개념을 외국 드라마 수용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드라마 내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근접성 정도가 해외 수용자들의 영상물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문화적 근접성' 개념은 수용자들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느끼는 문화적 친숙함의 정도로 국가에 대한 인지도와 드라마에 표현되는 시공간, 영상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유사성, 등장하는 인물들의 가치, 규범, 인간관계가 재현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가치적 유사성 등으로 구성된다[16].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의 편성을 줄이고 자국산 드라마가 편성되거나 주변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들이 많이 유통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난다.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은 여러 국가 시청자들의 정서나 가치에 공통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보편적 서사구조를 추구하고, 등장인물의

성격을 '선'과 '악'으로 대비시키는 등 다양한 국적의 수용자들을 공략하는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다. 문화적 근접성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본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역사인식이 드라마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17]. 연구 결과, 한·일 역사인식이 긍정적인 수용자일수록 한국드라마에 더 몰입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만 수용자들이 일본 드라마를 선호하는 주요 요인으로 드라마에서 보이는 일본인의 삶의 방식이 자신이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 및 인간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18].

2. 성향 이론(Disposition theory)의 관점에서 본 외국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문화적 근접성 이론과 함께 드라마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성향이론'은 외국 드라마 수용을 설명하는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즉 문화적 차이에 따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가치, 관계성 등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는 경우 드라마 선호도, 만족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 드라마 수용 연구는 드라마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감정적 연결과 시청성과와의 관계를 설명한 '성향이론(disposition theory)'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성향이론에 의하면 드라마에서 재현된 인물들의 성격, 태도, 행동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드라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즐긴다고 밝힌다[11]. 시청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등장인물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싫어하는 등장인물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드라마를 더욱 흥미롭게 시청한다는 것이다[10][19]. 더 나아가 Raney[11]는 시청자들이 등장인물들을 평가함에 있어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 틀 안에서 등장인물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기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성향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수용자들이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드라마의 인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가 드라마를 즐기고 평가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드라마 내에서의 주요인물의 위치, 성격, 도덕성 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가족드라마 수용에 주

목하였다. 이는 ‘가족’이 전 세계에서 공유하는 보편적인 개념이자 가치이면서도 문화권마다 가족관계, 역할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시청자들은 가족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할, 사랑의 정의를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가 드라마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문화적으로 근접한 동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 수용자들의 한국 영화 콘텐츠 수용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세 국가 수용자들이 ‘장유유서’와 같은 유교적 도덕관 혹은 동양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족애에 강한 호의를 보이고 이를 통해 영화를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18]. 강명구 외[20]는 한국의 부모-자식 관계를 재현한 한국 드라마를 수용한 시청자들은 국가별로 다르게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과 일본 시청자들은 자기 혼자 독립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주인공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구성원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강한 유대관계에 대해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수용자들 역시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이유를 드라마에 나타나는 가족 관계, 자녀 교육 방식, 연인들 간 삼각연애관계 등에 대한 공감이라 하였으며, 가족 드라마의 경우 가풍을 중시하고 장유유서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21]. 문화권이 다른 시청자들의 드라마 수용연구도 이루어졌는데 류양과 리[22]는 미국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드라마의 흥미성(enjoyment)을 예측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였고 등장인물의 성격 및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정도가 드라마 흥미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미국 수용자들은 이와 함께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는 이유로 자신들과 다르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독특하고 재미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동경도 드라마 흥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함에 있어 등장인물의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하며, 등장인물의 도덕성 평가와 드라마 수용과의 관련성은 어떠한지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국가별로 한국 드라마의 주요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1-1) 미국, 중국, 일본 시청자들의 한국 드라마의 주요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1-2) 중국과 일본 시청자들의 주요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 차이보다 중국, 일본과 미국 시청자들의 도덕성 평가차이가 더 클 것이다.
2. 주요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주요 인물들의 도덕성 평가는 드라마 흥미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 2-2) 주요 인물들의 도덕성 평가와 드라마 흥미도와 의 관계성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3. 주요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주요 인물들의 도덕성 평가는 드라마 질 평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 3-2) 주요 인물들의 도덕성 평가와 드라마 질 평가와의 관계성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드라마와 주요 등장인물

본 연구는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2월 14일까지 방영된 KBS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¹⁾의 주요 등장인물 진애, 훈재, 산옥, 영선, 형규, 형순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엄마와 딸이 전하는 웃음과 감동의 이야기”라는 기획의도 하에 제작되었으며 주인공 진애와 엄마인 산옥, 그리고 진애에게 시어머니가 될 영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위 드라마는 두 엄마와 그들의 자식들

1) 2015년부터 2016년에 걸쳐 한국에서 방영된 ‘부탁해요 엄마’는 시청률 30%를 지속적으로 넘는 아주 성공적인 드라마이다.

간의 관계를 그린 가족 드라마이다. 연구에서 사용한 1, 2회 요약 편은 드라마 도입부의 취지에 맞게 각 등장인물의 캐릭터와 배경 소개를 중심으로 한다. 남녀 주인공인 진애 가족과 훈재 가족이 드라마의 중심이고, 특히 여주인공 진애와 진애의 엄마 산옥과의 갈등이 중심 내용으로 그려진다.

표 1. 주요등장인물의 성격

주요등장인물	주요등장인물의 성격
진애	산옥의 둘째 딸, 현대적 여성, 진취적이며 대범함.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 엄마가 오빠를 편애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고 엄마와 앙숙.
훈재	영선의 외아들, 능력 있고 긍정적인 성격, 일찍이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게 다정다감한 아들
산옥	아들을 우선시하는 전통적인 엄마 상. 반찬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강한 어머니. 속정은 깊으나 거친 말투와 행동을 보임. 첫째 아들 형규를 가장 위하며, 딸인 진애와는 갈등을 빚음.
영선	훈재의 어머니,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사업에도 성공한 여성. 직장에서 현명하고 이상적인 상사이나 아들에게 집착하며 아들 몰래 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여성.
형규	산옥의 장남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 매우 이기적이며 장자로서의 책임감은 강하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족의 희생을 요구함.
형순	산옥의 막내아들. 만년 취업 준비생. 낙천적이고 순하고 착함.

2. 연구방법 및 조사 시기

본 연구는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의 1, 2회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시청한 후 등장인물들의 도덕성과 즐거움, 드라마의 질에 관해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한 편에 65분 정도의 드라마 1, 2회를 각각 30분의 요약영상으로 시청하였고, 음성은 한국어로 바탕으로 그 위에 영어 자막을 입혀 언어적 한계를 극복하였다.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1월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조사자는 편의표본을 이용한 중국인 101명(나이 평균: 23.21살), 일본인 32명(나이 평균: 22.91살), 미국인 186명(나이 평균: 20.42살)으로 총 319명의 여성이다. 중국인과 일본인 참가자 81.8%와 93.5%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이고 미국인 참가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로 14%만이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3. 설문조사 내용

'부탁해요, 엄마'의 2회분 요약 영상을 시청한 후 설문문에 답하였다. 요약 영상을 성실히 시청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 확인 설문을 포함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질문으로 나이, 국적, 한국방문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드라마 전체에 대한 평가와 극 중 등장인물 진애, 훈재, 산옥, 영선, 형규, 형순 6명에 대한 도덕성 및 인물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등장인물의 도덕성 문항(예: 진애가 극중에서 얼마나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나요?)은 리커트 7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고, 인물의 도덕성을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함께 물었다. 드라마 전체에 대한 평가는 드라마를 통해 느끼는 흥미도와 드라마 질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드라마를 얼마나 즐겼는가?' 라는 '흥미도' 평가 질문에 10점 척도를 사용하고, '드라마의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라는 '질' 평가 질문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V. 분석결과

1. 중국, 일본, 미국 시청자들의 드라마 주요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

표 2. 국가 간 드라마 주요인물에 대한 도덕성 점수

	미국	중국	일본	F	p
	M(SD)	M(SD)	M(SD)		
진애	5.21 (1.23)	4.92 (1.51)	4.69 (1.31)	2.98	0.052
훈재	5.83a (1.18)	4.97b (1.51)	5.38ab (1.34)	14.35	0.00
산옥	4.57a (1.43)	4.50a (1.44)	3.75b (1.34)	4.57	0.011
영선	5.35a (1.31)	4.51b (1.29)	4.75ab (1.69)	13.55	0.00
형규	3.92 (1.29)	3.80 (1.44)	3.48 (1.31)	1.46	0.234
형순	4.69 (1.29)	4.52 (1.32)	4.34 (1.23)	1.28	0.28

*a, b는 사후분석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미국, 중국, 일본 시청자들의 드라마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차이 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진애, 형규, 형순

을 제외하고 훈재, 산옥, 영선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국가 간 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덕성 평가 점수를 살펴보면 미국 시청자들이 대체적으로 중국과 일본 시청자들에 비해 도덕성 평가가 높은 편 이었다. Scheffe방식을 이용한 사후분석결과에서 훈재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비해 유의하게 더 도덕적인 인물로 평가했으며, 중국인과 미국인이 일본인에 비해 산옥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영선의 경우 미국이 중국에 비해 도덕성을 높게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도덕성’ 기준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주요 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도덕성 평가 순위를 같이 분석하였다.

표 3. 국가 간 드라마 주요 인물에 대한 도덕성 순위

인물	전체 순위	미국 순위	중국 순위	일본 순위
훈재	1위(5.51)	1위(5.83)	1위(4.97)	1위(5.38)
진애	2위(5.08)	3위(5.21)	2위(4.92)	3위(4.69)
영선	3위(4.86)	2위(5.35)	4위(4.51)	2위(4.75)
형순	4위(4.51)	4위(4.69)	3위(4.52)	4위(4.34)
산옥	5위(4.37)	5위(4.57)	5위(4.50)	5위(3.75)
형규	6위(3.68)	6위(3.92)	6위(3.80)	6위(3.48)

평가 순위별로 볼 때에는 3명의 등장인물, 훈재, 형규, 산옥의 경우 평가순위가 같았으나 진애, 영선, 형순의 경우는 국가별로 도덕성 평가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진애, 영선, 형순의 순위를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영선을 진애보다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중국의 경우 형순을 영선보다 도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도덕성 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 ‘진애’를 제외하고, 주요 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는 3개 국가 시청자들 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이 중국, 일본 시청자들에 비해 주요 인물들에 대한 도덕성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았다. 이는 미국 시청자들과 중국, 일본 시청자들과의 도덕성 평가 차이가 중국, 일본 시청자들 간의 도덕성 평가 차이보다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2. 중국, 미국, 일본 시청자들의 주요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

2.1 주요인물의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2는 등장인물의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를 예측하는 변인일 것이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변인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를 통해 여섯 개 예측변수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는 .57부터 .91 사이였고, 분산팽창요인(VIF)는 1.10에서 1.97 사이 값을 보였다. 국가별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시청자들의 경우에만 전체적으로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고(F (6, 178) = 8.07, p < .001, adjusted R2 = .19), 중국과 일본의 경우 영향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여섯 개의 예측 변인 모두 드라마 흥미도를 예측함에 있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시청자의 경우 도덕성 평가와 드라마 흥미도는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주요 인물 별로 영향 관계에 차이가 있었는데, 훈재의 도덕성 평가가 두 나라 수용자 모두에게 드라마 흥미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일본 시청자의 경우, 진애와 산옥의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가설 2는 매우 제한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4. 주요인물의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국가	영향인	B	β	t	p	Adj.R ²	F
미국	진애	.19	.09	1.19	.237	.19	8.07 p<.001
	훈재	.75	.32	4.14	.000		
	산옥	.05	.03	.34	.731		
	영선	.26	.124	1.71	.088		
	형규	.09	.04	.55	.582		
	형순	.20	.09	1.39	.183		
중국	진애	-.142	-.101	-.836	.405	.02	1.36 p=.240
	훈재	.259	.183	1.282	.203		
	산옥	.316	.211	1.810	.074		
	영선	-.062	-.037	-.286	.776		
	형규	-.260	-.180	-1.573	.119		
	형순	.051	.032	.275	.784		
일본	진애	.606	.414	2.351	.027	.22	2.37 p=.061
	훈재	-.647	-.448	-2.093	.047		
	산옥	.606	.429	2.419	.024		
	영선	.281	.249	1.241	.227		
	형규	-.115	-.078	-.385	.704		
	형순	.143	.091	.511	.614		

2.2 주요인물의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장인물들의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여섯 개의 변인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51에서 .90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는 1.11에서 1.97의 값을 보였다. 분석 결과, 중국과 일본 수용자의 경우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F(6, 176) = 8.52, p < .001, \text{adjusted } R^2 = .20$). 혼재($\beta = .31, t = 4.04, p < .001$)와 산옥($\beta = .16, t = 2.21, p < .05$)의 도덕성 평가는 드라마 질 평가를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미국 수용자의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5. 주요인물의 도덕성 평가가 드라마 질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	영향요인	B	β	t	p	Adj.R ²	F
미국	진애	.05	.06	.88	.378	.20	8.52 p<.001
	혼재	.27	.31	4.04	.000		
	산옥	.11	.16	2.21	.029		
	영선	.04	.06	.79	.430		
	형규	.02	.03	.36	.718		
	형순	.09	.11	1.60	.112		
중국	진애	-.03	-.05	-.39	.698	.05	1.85 p=.098
	혼재	.15	.26	1.86	.066		
	산옥	.07	.11	.96	.342		
	영선	.08	.11	.86	.395		
	형규	-.05	-.09	-.78	.439		
	형순	-.05	-.081	-.69	.493		
일본	진애	.06	.10	.54	.593	.19	2.15 p=.084
	혼재	-.17	-.28	-1.29	.209		
	산옥	.35	.58	3.21	.004		
	영선	.06	.13	.63	.534		
	형규	-.19	-.31	-1.50	.148		
	형순	-.00	-.00	-.02	.987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글로벌 미디어 시대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 시청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수용함에 있어 드라마 주요 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인식의 차이가 드라마 흥미도와 질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중국, 일본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 등장하는 6명의 주요 인물들의 도덕성에 대해 다르게 평가하였다. 물론 ‘남자 주인공 혼재’의 경우 3개국 시청자 모두 전반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하였고, 이기적인 큰아들 형규는 3개국 시청자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드라마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공통된 규범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애, 영선, 산옥 등 부모와 자식의 역할에서 대립되는 양상을 보인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는 3개국 시청자 간에 평가가 엇갈렸다. 미국 시청자의 경우 진애에 대해 가장 우호적이었는데 이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자식의 역할보다는 진취적 여성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성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 중국과 일본 시청자들은 엄마에게 자기주장을 하면서 맞서는 진애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부장적인 체제에서 부모와 자식의 역할을 중시여기는 아시아권 국가 중국과 일본 시청자들은 엄마에게 반항하는 진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엄마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외국드라마를 수용함에 있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수용자들이 드라마 주인공의 행동 태도를 인식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주요 등장인물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수용자가 느끼는 드라마 흥미도나 드라마의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중국, 일본의 경우 지지되지 않았고, 미국 시청자들에게만 지지되었다. 분석결과 예상과는 달리 3개국 시청자 중 한국과 문화적 거리가 가장 멀다고 생각되는 미국 시청자들이 등장인물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미국 문화와는 다른 가부장적인 가족체제의 모습을 오히려 흥미롭게 바라보고 이러한 흥미도가 좋은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시청자들이 외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이유가 이질적인 문화권에 대한 동경심과 호기심이라는 선행연구[6]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문화적으로 근접한 내용의 드라마를 더 선호한다는 ‘문화적 근접성’ 이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남자 주인공인 훈재와 형규의 경우 ‘착한 남자’와 ‘이기적인 남자’의 표상으로 그려지면서 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평가가 나뉠 수밖에 없으나, 진애, 산옥, 영선의 경우는 3개국 간에 도덕성 평가가 다르게 나타나 문화적 배경이 드라마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시청자의 경우 응답자가 32명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드라마 주인공들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수용자들이 느끼는 드라마 흥미도와 질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성향이론의 가설들이 강하게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적 배경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되는 미국 시청자에게서 ‘성향이론’이 지지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한국드라마에서 재현된 상징적 현실이 서구의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 선정과 접근의 어려움으로 20대의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양한 연령, 성별을 포함하는 후속연구를 통해 문화적 배경이 다른 수용자들이 드라마 주인공들의 성격, 역할을 평가하는 데에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드라마 시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야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드라마 수용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L. Antola and E. M. Rogers, “Television flows in Latin America,” *Communication Research*, Vol.11, No.2, pp.183-202, 1984.
- [2] J. Straubhaar and G. M. Viscasillas, “Class, genre, and the regionalization of television program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1, No.1, pp.53-70, 1991.
- [3] K. Iwabuchi, *Becoming “culturally proximate”: The ascent of Japanese idol dramas in Taiwan*, Asian media productions, pp.54-74, 2001
- [4] S. Park and Y. Hwang, “Effects of cultural proximity and relative market size on the trade of television programs,”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nference, Seoul, Korea, 2002.
- [5] M. Elasm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elevision: A Paradigm Shif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3.
- [6] 정윤경, “수입 프로그램에 대한 노출 및 태도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6호, pp.34-61, 2004.
- [7] 양혜승, “드라마 수용자는 어떤 특성을 지닌 등장인물을 시청하려 하는가?,”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1호, pp.78-106, 2017.
- [8] D. Zillmann and J. R. Cantor, *A disposition theory of humour and mirth*, 1976.
- [9] D. Zillman, “Television viewing and psychological arousal,” In J. Bryant and D. Zillman (Eds.), *Responding to the screen: Reception and reaction proces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103-133, 1991
- [10] A. A. Raney, “The psychology of disposition-based theories of media enjoyment,” In J. Bryant and P. Vorderer (Eds.), *Psychology of entertainment*, Mahwah, NJ: Erlbaum, pp.137-150, 2006.
- [11] A. A. Raney, “Expanding disposition theory: Reconsidering character liking, moral evaluations, and enjoyment,” *Communication Theory*, Vol.14, No.4, pp.348-369, 2004
- [12] 영상콘텐츠 제작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50555&cid=58190&categoryId=58190>, 2014.
- [13] 이민규, 우형진,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6호, pp.248-273, 2004.
- [14] H. Newcomb and P. Hirsch, “Television as cultural forum: Implications for research,” *Quarterly Review of Film Studies*, Summer, pp.44-55, 1983.
- [15] 유세경, 김명소, 이운진,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 동기와 태도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8권, 제1호, pp.245-288, 2004.

- [16] 정운경, 유세경, 이혜은, 김지하, “미국 여성 시청자의 한류 드라마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9호, pp.40-50, 2016.
- [17] 김미선, 유세경, “일본 시청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pp.44-54, 2014.
- [18] 박승우, “동아시아 3 국의 한류: 한국, 중국, 일본 수용자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23권, 제1호, pp.41-77, 2015.
- [19] Rene Weber, Ron Tamborini, Hye Eun Lee, and Horst Stipp, “Soap Opera Exposure and Enjoyment: A Longitudinal Test of Disposition Theory,” Media Psychology, 제11권, 제4호, pp.462-487, 2008.
- [20] 강명구, 김수아, 서주희, “동아시아 텔레비전 드라마가 재현한 가족과 가족 관계,” 한국언론학보, 제52권, 제6호, pp.25-56, 2008.
- [21] 이한우, “베트남에서의 한류, 그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효과,”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제42권, pp.93-113, 2002.
- [22] M. L. Chuang and E. H. Lee, “Korean wave: Enjoyment factors of Korean dramas in the U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37, No.5, pp.594-604, 2013.

저 자 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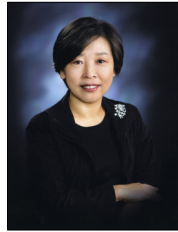
이 혜 은(Hye Eun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이학사),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2005년 5월 : Michigan State Univ., Communication(MA)
 - 2008년 8월 : Michigan State Univ., Communication(Ph.D)
 - 2007년 8월 ~ 현재 : Univ. of Hawaii at Manoa 조교수/부교수(2014년 8월 승진/정년보장)
- <관심분야> : 대인커뮤니케이션, 문화간커뮤니케이션, 글로벌커뮤니케이션

유 세 경(Sae-Kyung Yu)



정회원

- 198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문학사)
 - 1986년 6월 : Univ. of Texas at Austin, Radio-TV-Film(MA)
 - 1990년 6월 : Univ. of Texas at Austin, Journalism(Ph.D)
 - 1995년 9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미디어경영, 영상콘텐츠진흥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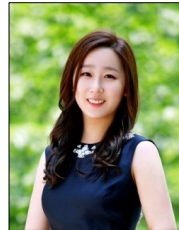
정 윤 경(Yoonkyung Chung)



정회원

- 1987년 2월 : 이화여대 영문학과(문학사)
 - 1990년 5월 : Univ. of Texas at Austin, Journalism(문학석사)
 - 2001년 2월 :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문학박사)
 - 2005년 9월 ~ 현재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콘텐츠유통

이 유 진(Eugene Lee)



준회원

- 201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방송영상학과(문학사)
 - 2015년 3월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석사과정 재학
- <관심분야> : 글로벌커뮤니케이션, 미디어 경제학